

키르기즈 유혈 사태의 경과와 전망

1. 유혈 사태의 경과

□ 2010년 4월 6~7일, 탈라스(Talas)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확산

- 4월 6일, 키르기즈 북서부 소도시 탈라스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됨.
-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했으나 3,000여 명의 시위대가 다시 규합해 지방 행정기관 건물을 장악

<그림> 키르기즈의 지정학적 위치



자료: ekyrgyz.com 참조, 필자 재작성.

- 4월 7일, 나린(Naryn) 및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까지 시위가 확산됨.

- 시위대 3,000~5,000명이 대통령 청사로 행진했고 내무부의 보안본부, 국영 방송국, 검찰청사 등 주요 관공서를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황이 격화되자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해 수백여 명의 사상자 발생¹⁾
- 쿠르만벡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은 비슈케크 및 3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행원들과 남부 도시인 오쉬(Osh)로 도피

□ 4월 8일, 야당은 과도정부 구성해 국정 장악

-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f Kyrgyzstan: SDP) 당수 로자 오투바예바(Roza Otunbayeva)가 과도정부 구성을 선포함.
- 오투바예바는 자신이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
- 러시아의 푸틴(Putin) 총리는 오투바예바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상 과도정부를 승인하고,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 미국은 오후 8시를 기해 비슈케크 남쪽 23km에 있는 마나스(Manas) 공군기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항공기 운항 중단

<표 1>

마나스 미군 공군기지

2001년 12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거점으로 설치되었으며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 항공기 급유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5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지를 폐쇄하도록 키르기즈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2006년 12월 미군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자 기지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

2009년 2월에 키르기즈 의회는 기지의 임대료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같은해 6월에 미국이 기존 임대료의 3배인 연간 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면서 이 기지는 수송 기지(transit center)로 이름을 바꾸어 존치되고 있음.

1) 키르기즈 보건부는 2010년 4월 7일 현재 사망자 47명, 부상자 4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4월 9~11일, 과도정부는 정국 안정에 주력

- 4월 9일, 오투바예바는 바키예프에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임을 촉구했으나 바키예프는 지지 기반인 남부 지역에 머물며 이를 거부함
 - 과도정부는 바키예프의 두 아들과 형을 살인혐의로 공식 수배하는 한편, 바키예프가 자금을 국외로 유출할 것을 우려해 국가 금융시스템을 동결하는 등 바키예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
- 4월 10일, 과도정부는 10~11일을 시위대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지정²⁾하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함.
 - 약탈자나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고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정국 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원조를 요청하는 등 경제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³⁾
 -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투바예바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11일 키르기즈 주재 미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해 과도정부를 사실상 승인

□ 4월 13~17일, 바키예프 대통령 사임으로 정국 안정화

- 4월 13일, 바키예프는 자신과 친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15일 공식 사임성명에 서명한 후 카자흐스탄으로 떠남⁴⁾
- 바키예프의 사임으로 내전 발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과도정부는 정치 체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과도정부 핵심인사들을 포함한 약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정부 시위 희생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음. 2010년 4월 10일 현재 키르기즈 보건부 추산 최소 79명이 사망함.

3) 과도정부는 현재 키르기즈 국고에 약 9억 8,600만 쉼(약 245억원 상당)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4) 바키예프는 11일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경우 “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임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간 막후 협의 후 입장을 선회함. 바키예프와 그의 가족은 17일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로 이동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로루시 대통령은 그가 벨로루시로의 망명을 원할 경우 환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함.

- UN 사무총장 특사는 16일 UN에서 '과도정부가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 작업을 3개월 내에 마무리하여 6개월 내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고
- 17일 남부 잘랄라바드(Jalalabad)에서 150여 명의 바키예프 지지자들이 시청사에 난입하는 등 일부 소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정국은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

2. 유혈 사태의 배경

□ 경제난에 대한 국민 불만 폭발

- 키르기즈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9년 기준 868달러에 불과한 중앙아시아의 빈국으로, GDP의 대부분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근로자의 송금 수입 및 미국·러시아의 공군기지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해외 근로자 송금액은 전년대비 약 30% 감소
- 2010년 1월부터 정부가 전력 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폭발

□ 더딘 민주화 진전에 대한 실망감 표출

- 2005년 3월 레몬혁명의 주역이었던 바키예프는 정국 안정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하지만 집권 후에 야당 탄압, 부정부패, 정실인사 등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전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해 국민의 실망감 증폭
- 특히 오투바예바 등 레몬혁명을 함께 성공시켰던 야당 지도자들은 점차 권력에서 배제되었고 2007년 부정 총선 결과 대통령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동년 4월 비슈케크에서 수차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음.

- 2009년 7월 대선에서 바키예프는 85%의 득표율로 재집권했으나 부정 선거 의혹 등 국민들의 불만을 외면해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었음.⁵⁾

<표 2>

레몬혁명

2005년 3월 키르기즈의 레몬혁명은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 이은 구소련 국가의 세 번째 민주화 혁명으로, 레몬혁명이란 시위대가 레몬을 변화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임.

1991년 8월 독립 이래 아카예프 대통령이 14년간 장기집권해 왔으나 2005년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고, 3월 20일 남부 잘랄라바드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점차 북쪽으로 확대됨.

3월 24일 시위대가 수도 비슈케크를 점거하고 아카예프가 사임하였으며, 그 해 6월 바키예프 과도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

□ 뿌리 깊은 남북지역 간 갈등 반영

- 바키예프는 남부 출신으로, 지지기반인 남부의 잘랄라바드에서 시작된 레몬혁명을 통해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아카예프 정권을 퇴진시키고 권력을 장악했음.
- 당시 바키예프는 북부 출신의 펠릭스 쿨로프(Feliks Kulov) 전 KGB 국장과 연합하여 집권하였으나 이 연합은 곧 와해되었고 쿨로프를 포함한 북부 출신 인사들은 퇴출되었음.
- 이번 유혈 사태가 북부의 탈라스에서 처음 촉발된 것도 현 정권에서 배제된 북부지역의 소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5) 바키예프는 2009년 10월 아들을 경제개발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주요 정부부처를 자신의 직속 부처로 개편하는 등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권력 공고화에 집중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음.

3. 유혈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 러시아

- 러시아는 가장 먼저 과도정부를 사실상 승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자국 외교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수부대원 150명을 비슈케크 인근의 칸트(Kant) 공군기지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음.⁶⁾
 - 비슈케크의 약 20km 동남쪽에 위치한 칸트 공군기지는 2003년 10월 체결된 양자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1991년 이후 러시아가 최초로 국외에 설치한 공군기지임.
- 러시아는 4월 10일에 러시아를 방문한 과도정부 대표단에 2천만 달러의 원조자금과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며 마나스 기지를 폐쇄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임.

□ 미국

- 키르기즈에 주요 전략 군사시설인 마나스 공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클린턴 국무장관은 과도정부 선포 이틀 후인 4월 10일 오툰바예바와에게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11일 키르기즈 주재 미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해 과도정부를 사실상 승인했음.
- 과도정부 내에서 기지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금년 7월 기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두고 미국은 정국 향방을 주시하고 있음.

6) 러시아가 2009년 20억 달러가 넘는 경제지원을 약속받았고 미군 기지를 존치시킨 바키예프에 불만을 품고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은 그의 퇴진을 방관했다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중국

-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온 중국은 키르기즈가 신장자치지구에 인접해 있고 인근 지역의 이슬람 무장세력 침투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키르기즈 유혈 사태를 신중히 관망하고 있음.

□ CIS 국가들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 CIS 국가들은 독립한 지 약 20년이 되었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지 못했고 장기 독재, 부정부패, 족벌정치, 인권탄압, 경제난으로 국민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키르기즈 상황과 유사함.
- 그러나 이들은 키르기즈와 달리 대부분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을 바탕으로 임금·연금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⁷⁾

4. 전망

□ 과도정부의 과제는 경제난 타개 및 민주화 진전

- 4월 17일 잘랄라바드 소요 사태 등 바키예프 지지세력의 저항은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과도정부가 정국을 장악하고 러시아, EU 등에 경제 원조를 요청하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CIS 국가들은 주요 수입원인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언론 및 인권 탄압이 지속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음.

- 과도정부가 6개월 후 실시 예정인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부패, 정실인사 등을 답습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과도정부 내에서도 마나스 공군기지 존치 여부에 대해 친러, 친미 성향 인사의 입장이 상이한 점 등 세력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정국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와는 교류관계 미미해 큰 영향 없음

- 양국간 2009년 교역량이 11억 달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대 키르 기즈 투자도 2009년 말 현재 누계액이 6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교류 관계가 미미하며, 현지의 우리나라 교민도 120여 명임.
- 이에 따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책임조사역 허 정 옥 (☎ 02-3779-6653)

E-mail: johuh@koreaexim.go.kr